혼돈스러운 도시 풍경에 대한 유머: 아크네 스튜디오

A Play on the Chaotic Scenery of our City: Acne Studios

아크네스튜디오 파사드 전경
Façade of the Acne Studios

한국에 첫 독립 매장을 연 아크네 스튜디오는 여느 브랜드처럼 청담동의 대로변 풍경이 되기를 고집하지 않았다. 대로 뒤 이면도로를 낀 골목길 안쪽으로 깊숙이 존재를 감췄다. 하지만 이 막다른 좁은 골목길 끝에서 아크네 스튜디오는 자신의 내장과도 같은 공조설비와 배관을 과감하게 옥상으로 모두 끄집어 올리며 감춰야 할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야 할 것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매장의 입지와 건물의 외관이 보여주는 반어적 어법은 우리 도시의 혼돈스러운 풍경에 대한 유머처럼 보이기도 하며, 혼돈 속 또 다른 질서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크네 스튜디오를 설계한 영국 건축가 소피 힉스를 만나 그 반어적 어법의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박성진** | 자료제공 **소피 힉스 아키텍츠** | 사진 **애나벨 엘스톤**

Acne Studios, which is now opening their first flagship store in South Korea, did not insist upon the main street view of Cheongdam-dong as many ordinary launchings of other brands. The building has hidden itself deep behind an alley at a backside road of the main street. At the end of the narrow blind alley, however, the store looks like it conceals what it should reveal, and it reveals what it should conceal; pulling out air-conditioning units and pipes which like its entrails. The irony is that the loca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store shows show appear not only as a play on the chaotic scenery of our city, but on another order of chaos that speaks to disorderliness. *SPACE* meets the British architect Sophie Hicks, who designed Acne Studios Cheongdam, to enquire about the ironical background of the store.
interviewed by **Park Sungjin** | materials provided by **Sophie Hicks Architects** | photographed by **Annabel Elston**

박성진(박): 보통 서울 청담동 매장들은 대로변의 가로 풍경을 점유하기 위해 어떻게든 얼굴을 내밀고자 아우성인데, 아크네 스튜디오는 뒤쪽 이면도로에서 다시 좁은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이 같은 예외적인 입지 선택이 건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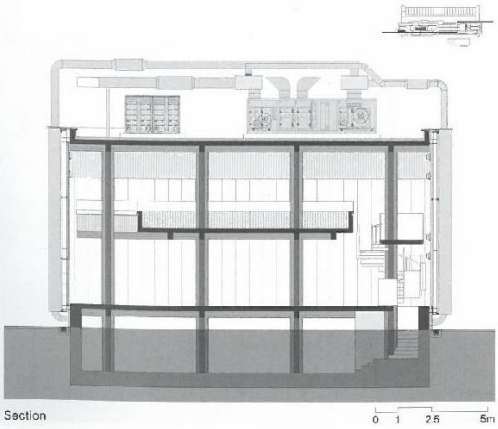
소피 힉스(힉스): 아크네 스튜디오의 입지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메마른 상업주의에 물든 소란스러운 압구정 대로변보다 이곳 골목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다. 이곳은 서울에서 명품 매장들이 모여 있는 청담동의 좁은 골목 사이에 숨어 있다. 작은 상점과 레스토랑, 주택들이 아담하게 모여 있는 이 골목길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와 스튜디오를 마주한다면 주변 풍경과 상이한 그 모습에 사뭇 놀라게 될 것이다. 복잡한 건물과 차량에 완전히 둘러싸여 마치 다른 건물의 뒤뜰에 밀어 넣어진 단정한 건물은 청담동에서도 아주 낯선 모습이다. 게다가 건물 앞에 주차 요원을 위한 작은 박스와 어지러운 전봇대 위로 새집이 붙어 있는 모습이 이곳을 더욱 정겹게 한다.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새에게 먹이를 주거나 최신 스웨덴 패션을 쇼핑하는 상상을 했다. 나는 이처럼 서로 다른 스타일과 사람들의 충돌을 즐긴다.

박: 사실 당신의 앞선 작업들에서는 온전한 건축 설계에 대한 당신의 취향과 어법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대부분 유럽의 근세기에 지어진 고전적 건물의 외관을 살리고 내부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건축적 등사를 놓고 볼 때, 이곳 서울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그것도 매우 과감하게 현대적인 건축물을 설계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해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힉스: 내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한 가지 맥락이 있다. 건축은 반드시 그 장소에서 맥락에 적합한 '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건축은 그 장소에서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이질적 대상 사이의 대비를 즐아한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복잡한 장소에는 매우 단정한 형태의 건물을 두는 것이 서로 의미와 소통을 만드는 일이 된다.
나의 전작들이 그다지 현대적이지 않다는 당신의 지적은 맞다. 이는 허가 절차상 현대건축물의 신축이 매우 어렵다는 유럽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땅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대신 주로 리모델링을 선택한다. 영국 건축가에게 한국에서 한 이번 같은 신축 작업은 일종의 호사인데, 이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나의 건축적 사고를 표현할 창조적 기회를 서울에서 얻은 것이고, 이를 통해 건축주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허가를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유럽에서 작공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한국에서 건물을 완공할 수도 있다.

박: 당신은 서울에 여러 건물의 옥상이나 입면을 차지하고 있는 공조설비와 실외기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이 상황에서 과감하게 공조설비와 그 배관을 그대로 꺼내 노출해 이 혼돈을 부정하기보다는 또 다른 혼돈의 질서와 미학을 선보여준 것 같다.

힉스: 밖에서 보면 아크네 스튜디오는 매우 절제되고 우아한 빛의 상자이다. 반투명한 유리 같지만 근본적으로 꾸밈이 없고 명료하다. 복잡한 주변과는 강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내부에 육중한


Section
0 1 2.5 5m

'콘크리트 괴물'을 숨기고 있는 상자임을 깨닫게 된다. 주변 건물 옥상을 훑어보면 많은 공조설비들이 옥상과 건물의 뒷면에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징적 장면이다. 서울 사람들은 아마도 에어컨 설비를 어디에 둘지 몰라서 옥상에 그냥 던져 놓고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 건물의 공조설비를 옥상에 노출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변 건물들을 향한 가벼운 농담이자 연결고리로, 이를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말끔하게 설치해 건축의 일부가 되도록 디자인했다. 둘째 내부에 감춰진 '콘트리트 괴물'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낮은 천장 속에 공조시설을 숨겨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내부구조를 외부 벽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 당신이 영국의 건축가라는 점과 공조설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이 건물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처드 로저스로 대변되는 영국식 하이테크 건축을 참조점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건물이 그런 '이즘'으로 대변되는 거대 서사의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힉스: 당신 말이 맞다. 이 건물과 리처드 로저스 노출 덕트 사이에는 뚜렷한 건축적 관계가 없다. 리처드 로저스는 퐁피두센터에서 설비들을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건축적 탁월함으로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 아크네 스튜디오처럼 다른 건축가들이 비슷한 것을 할 때마다 항상 그와 비교될 테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비교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명분이 있다.

박: 아크네 스튜디오는 그 구조가 단순한 데 비해 폴리카보네이트와 금속 재료 간의 물성적, 구축적 대비 그리고 십자형 기둥과 교차보, 2층 Y자형 기둥의 사용 등에서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눈에 띈다. 이런 요소들의 조합과 사용이 상당 부분 외부보다 실내공간 연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궁극적으로 실내에서 어떤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나?

힉스: 스웨덴 문화는 겸손과 신중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에 반해서 아크네 스튜디오의 디자인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태도의 대조를 반영했다. 외부에서 본 건물은 우아하고 가벼운 상자이다. 반투명하고 본질적으로는 꾸밈없고 단순하다. 외양은 기만적일 수 있긴 하지만, 현혹적이다. 하지만 내부는 밖에서 본 느낌과는 다르게 육중하다. 거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두 층의 직사각형 건물로, 구조는 네 쌍의 콘트리트 기둥이 지붕과 2층을 지탱한다. 이 기둥들 중 하나에는 공중에 뜬 콘크리트 계단이 휘감고 있다. 2층에 올라가면 이 건물의 특징적 내부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 거칠고 둔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투명한 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장식은 없다. 콘크리트에는 스톡홀름 군도의 해변 판자길에 사용될 법한 거친 목재의 결이 찍혀있을 뿐이다. 매장에 전시된 옷의 모습이 일부 금속으로 마감된 벽에 부드럽게 반사되고, 공간을 장악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종류의 장식적인 마감은 하나도 없다.
스웨덴은 빛과 공기의 나라이다. 생생한 빛과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행복과 비현실성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분위기 또한 초자연적이다. 당신은 서울의 풍경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과 메달 그리드를 통해 산란되는 머리 위 형광 불빛에 감싸이고, 비현실적인 감각을 증폭시키는 음악과 함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건물은 또한 아주 말끔하다. 어떤 장비도, 덕트나 파이프도, 내장이나 주요 기관도, 눈에 띄는 어떤 기계적 존재도 내부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없다. 대신 이러한 것들이 옥상에 쌓여 있는 것이다.

아크네 스튜디오 2층 전경
2nd floor of the Acne Studios

영국 건축가 **소피 힉스**는 건축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테틀러」 잡지와 「브리티쉬 보그」의 패션 에디터를 거쳐 아제딘 알라이아와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며 패션업계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27살이 되던 해, 10여 년간 일해온 패션계를 떠나 런던 AA스쿨에서 건축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왕립 미술원의 〈팝아트〉전의 공간 디자인, 〈센세이션〉전의 디스플레이를 연출했으며 파리의 요지 아마도토 스토어와 여러 나라의 폴 스미스, 클로에 플래그십 스토어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 건물을 설계했다.

폴리카보네이트 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
Soft daylight filtering through the polycarbonate walls

Park Sungjin (Park): A boutique in Chengdam-dong, Seoul are usually eager to occupy the horizontal view of a main street. The Acne Studios, contradicting this approach, takes a step back into an alley at a backside road. How did this specific choice of positioning make an impact on the architecture?

Sophie Hicks (Hicks): I think it is a very good choice of location and much more interesting culturally than simply a location on a main road such as Apgujeong, which is impersonal, totally commercial and noisy.
The Acne Studios Cheongdam Flagship Store is hidden amongst the narrow winding side streets of Cheongdam, where you find some of the most exclusive shops in Seoul. The street is peaceful, with small shops, restaurants and houses, and the Acne Studios is tucked into a yard at the backs of other buildings, completely surrounded by messy buildings and cars, so that when you see the Acne building for the first time it is quite a shock as it is so different from its surroundings. Aside from this, there is a space for a car-park attendant in the yard and there even used to be a bird-box attached to the electricity post, so it creates a warm atmosphere. I imagine someone local putting grain out for the birds in the same yard as fashionistas buying the latest Swedish clothes. I like the clash of styles an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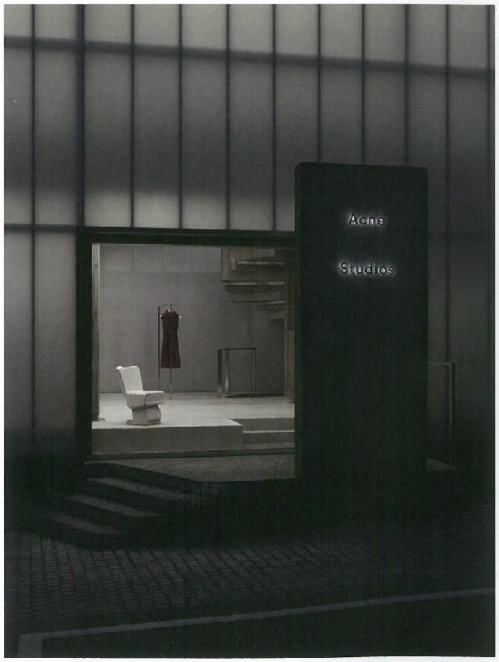
Park: It is difficult to discern your preferences and characteristic modes of use through a consideration of your portfolio of architectural designs. This is because most of them are remodeling works that preserve the appearance of classical structures of modern Europe, and renovate their interiors as contemporary sites. However, you have designed a very extraordinary, bold and contemporary structure here in Seoul, considering the precedents set by your career. So, I would like to ask you for your thoughts and for your opinion on the temporality and spatiality the city of Seoul.

Hicks: There is one thread that runs throughout all of my work: that architecture should make sense in its location. It should 'speak' to its location. On this aspect, I like to contrast between different subjects, so for me it makes sense to place a super-clean building in a super-messy location, as I have done for the building in Seoul. You are right to point out that many of my previous works are not so contemporary,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Europ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get permission to build contemporary buildings, and there is very little land left on which to build new buildings anyway. So we usually chose remodeling rather than tearing them down and starting again. It is such a luxury for a British architect to work in Korea, because it is a chance to express freer thoughts. I was allowed to create a building in Seoul which expresses my ideas, and with that freedom I have been able to create a building.
You might not believe it, but in the UK it would have taken so long to get the same kind of permission, that in Korea you would have finished building before we had even started the project in Europe. I promise it is true.

Park: You said that the ventilation facilities and outdoor air conditioning units on the rooftops and façades of many of Seoul's buildings made a strong impression to you. I think you showed an order and aesthetics of disorder, rather than deny these chaotic structures through exposing piping and ventilation systems.

Hicks: Viewed from the outside, the Acne building is a restrained, rather elegant lightbox: translucent and ghostly but, in essence, plain and simple. It contrasts with its messy surroundings. However, as soon as you enter, you realize that while it may only be a box, it is a box concealing a heavy, brooding, concrete monster.
If you look out over the rooftops of Seoul, you see lots of air conditioning units on the roofs and bolted to the backs of the buildings. It is part of the character of the city. I guess residents of Seoul probably didn't know where to put the units, so they throw them up onto the roof, out of the way, and forget about them.
There are two reasons why I expose the Acne air conditioning units on the roof: first, because I am making a little joke and a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messy aircon of the surrounding buildings—even though I have taken care to place the Acne aircon neatly and designed it carefully so that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architectural form. Secondly, in order to reveal the 'concrete monster'—clearly I did not want to complicate the interior with lowered ceilings hiding aircon ducts and units. It was very important to the architecture to see the interior structure as disconnected from the outside walls.

Park: It naturally reminds us that high-tech architectur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ke Richard Rogers—as a reference in relation to your nationality—is closely related to the features of a studio that exposes ventilation facilities. However, I don't think the building is a fruit of this macroscopic nar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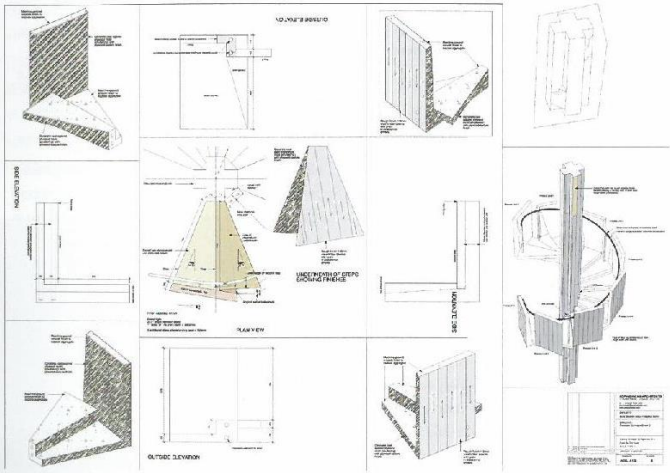


기천 콘크리트 질감을 노출한
기둥과 실내 모습
Exposed rough concrete
structure and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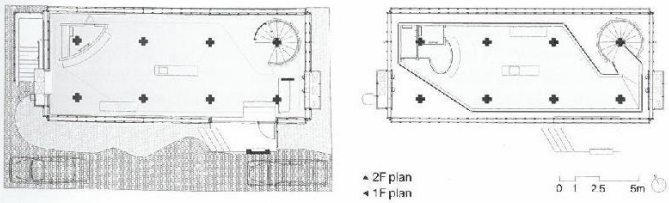
Hicks: You are right. There is no clear architectural connection between the exposed aircon units of Acne Studios and the exposed ductwork of Richard Rogers. Richard Rogers surprised the world by positioning his services externally on the surfaces of the Pompidou Centre and he will always be remembered for that piece of architectural brilliance. Any other architect attempting something similar will always be compared to him, but you still have cause to design it, even if it gives rise to the question as to whether it makes sense, which it really did for the building.

Park: I find that in contrast to the simple structure of the Acne Studios, different requisites for the building such as material and constructive contrasts between metal and polycarbonate, and the employment of cruciform columns and beams, the Y-type columns on the second floor are outstanding figures. In my opinion, the combination and use of these elements contributes towards interior design rather than towards the design of the exterior. What kind of indoor space did you ultimately intend to create?

Hicks: Swedish culture prizes modesty and discretion. By contrast, Acne Studios' designs are forceful and exude attitude. Our building reflects this contrast: viewed from the outside it is a restrained, rather elegant lightbox. It is, in essence, plain and simple. Appearances, though, can be deceptive, and so they are in this case. As soon as you enter, you realise that it is a box concealing a heavy concrete monster in contrast to the atmosphere of the outdoor areas.
This is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It is a



Concrete staircase detail



▲ 2F plan
◀ 1F plan

기둥을 휘감으며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 계단
A floating concrete staircase twining around a column

rectangular building on two floors, both of rough concrete, with four pairs of concrete columns holding up the roof and the upper floor. Around one of these columns winds a floating concrete staircase. Once upstairs, you realise the interior structure that characterizes this building. As you look down and about, you notice that the rough, lumpen, concrete structure is entirely separate from the translucent walls that enclose it that it sits inside its elegant box as if in a display case. There is no decoration. The concrete bears the imprint of rough timber such as that used to make boardwalks to the beach in the Stockholm archipelago and Acne Studios' clothing is shown against softly reflective metal walls, freestanding in the open space. However, there is not a single decorative finish of a traditional kind.

Sweden is a land of light and air: vibrant light and clean, fresh, invigorating air that can induce feelings of euphoria and otherworldliness. The shop's atmosphere is otherworldly. You are cut off from views of Seoul; you are enveloped in soft daylight, filtering through the polycarbonate walls, and light from bare fluorescents overhead, diffused by metal grids; and we have played tricks with the music to increase the sense of otherworldliness. The store is also pristine. No equipment—no ducts or pipes; no entrails or vital organs; no obtrusive mechanical realities—are allowed to disturb the atmosphere within. Instead, they are piled up on the roof.

Sophie Hicks, a British architect, was a fashion editor at *Tatler* Magazine and *British Vogue*, and worked for many years at the centre of the fashion industry as a fashion stylist for Azzedine Alaia. When she had become 27, she graduated from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London, leaving the UK fashion scene in which she had been working for more than a decade. After graduation she directed the interior design of 'Pop Art' and the display design of 'SENSATION, Yong British Artists from the Saatchi Collection' at the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Hicks has also designed other various fashion branding store projects such as the Yohji Yamamoto flagship store in Paris, the Paul Smith Stores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Chloé flagship stores, among others.

설계: 소피 힉스 아키텍츠(소피 힉스) **설계팀장:** 톰 호퍼 **실시설계:** 해안건축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9-7번지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37.6m² **건축면적:** 117.24m² **연면적:** 294.73m² **규모:** 2층 **주차:** 2대 **높이:** 9m **건폐율:** 8.62% **용적률:** 79.55% **구조:** RC조, 철골조 **외부마감:** THK22 단파론 패널, THK 24 이중 유리, THK2 스테인리스 패널, 스터코 마감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HK 22 단파론 패널, 조립식 천장 **조명디자인:** 아룹 라이팅 **구조설계:** 아룹 런던, (주)바른구조기술 **기계설계:** 한국설비연구(주) **전기설계:** (주)삼우티이씨 **시공:** 선무산업(주) **조경:** (주)바오이엔씨 **설계기간:** 2014. 9. – 2015. 2. **시공기간:** 2015. 2. – 9. **건축주:** 아크네스튜디오, 신세계인터네셔날

Architect: Sophie Hicks Architects (Sophie Hicks) **Design team:** Tom Hopes **Executive Architect:** Haeahn Architecture, Inc. **Location:** 79-7,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Korea **Programme:**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y **Site area:** 237.6m² **Building area:** 117.24m² **Gross floor area:** 294.73m² **Building scope:** 2F **Parking:** 2 **Height:** 9m **Building to land ratio:** 8.62% **Floor area ratio:** 79.55%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 structure **Exterior finishing:** THK22 Danpalon panel, THK 24 low iron pair glass, THK2 stainless panel, stuco finish **Interior finishing:** exposed structural concrete frame, THK 22 Danpalon panel, Eggcrate Ceiling **Lighting Design:** Arup Lighting (Andy Sedgwick and Tim Hunt) **Structural engineer:** Arup London with Barun Structure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 Hankook Mechanical Engineering Inc. **Electrical engineer:** Samoo Tec Inc. **Construction:** Sunwoo construction & engineering Inc. **Landscape architect:** Beoh Eno Inc. **Design period:** Sep. 2014 – Feb. 2015 **Construction period:** Feb. – Sep. 2015 **Client:** Acne Studios, Stockholm, and Shinsegae International Inc. Seoul